

#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일 간 에너지 관계

사할린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

임은정

## 1. 서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전쟁이 만들어 낸 복합적인 위기는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 러시아가 자원 부국인 만큼 에너지 분야에 미친 파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 연료 가격이 크게 출렁였고, 화석 연료 공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은 인플레이션과 무역수지 악화에 고통받았다. 경제 대국이지만 자원 빈국인 일본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에너지원(源) 가

**임은정(林恩廷)**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일본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국제학 석사,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의 국제관계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비상임이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일본연구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에 『아베 시대 일본의 국가전략』(공저, 2018), 『탄소중립과 그린뉴딜』(공저, 2021)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3042173).

<https://doi.org/10.29154/ILBI.2023.29.274>

격의 상승과 엔(円)화 가치의 하락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면서 2022년도 일본의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인 19조 9,713억 엔을 기록했다.<sup>1</sup>

한편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2022년 9월 20일(현지 시각) 제77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여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와 유엔 개혁의 중요성,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sup>2</sup> 일본 언론도 이념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러시아의 불법적 행동을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과 일본 역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종용해 왔고, 기시다 총리가 키이우(Kyiv)를 방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sup>3</sup> 결국 기시다 총리는 2023년 3월 21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흔들림 없는 연대를 표명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러시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sup>4</sup>

일본은 대러시아 제재에도 적극 동참했다. 일본은 줄곧 주요 7개국(G7, The Group of Seven)과 공조하는 자세를 보여 왔는데, 2022년 3월 11일에는 G7 정상들의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고,<sup>5</sup> 5월 9일에는 러시아산 석유의 원천 수입 금지도 표명하는 등 잇달아 제재를 단행했다.<sup>6</sup> 러시아에 진출했던 일본 기업들도 사

1 『Japan Data』貿易赤字、過去最大の19.9兆円-2022年：資源高に円安が拍車, 『Yahoo News』, 2023. 1. 20., <https://news.yahoo.co.jp/articles/1d8ba064cf793673fb85a819f951f73d8143d873> (최종 검색일: 2023. 3. 11.).

2 「岸田首相、ロシアを名指しで非難…国連総会で一般討論演説」, 『読売新聞』, 2022. 9. 21.,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20920-OYT1T50203/> (최종 검색일: 2023. 3. 12.).

3 佐々木類, 「ロシアの侵略1年 国際法違反の非道を各紙が批判 産経 “岸田首相はキーウ訪問を”」, 『産経新聞』, 2023. 3. 1.,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301-2KQKFEFRQBKRVEOA25JM-2QSV6Y/> (최종 검색일: 2023. 3. 12.).

4 「岸田首相 戦地 ウクライナ電撃訪問こうして実現した」, 『NHK政治マガジン』, 2023. 3. 22.,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97138.html> (최종 검색일: 2023. 3. 25.).

5 資源エネルギー庁 資源・燃料部, 『ウクライナ侵略等を踏まえた資源・燃料政策の今後の方向性』, 東京: 経済産業省, 2022, 4쪽.

6 「ロシア産石油 原則禁輸 岸田首相“削減時期 実態踏まえ検討”」, 『NHK』, 2023. 5. 9.,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509/k10013616771000.html> (최종 검색일: 2023. 5. 5.).

업 철수의 흐름에 합류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러시아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중, 일부 혹은 모든 사업을 정지한 비율은 약 60%에 달했다.<sup>7</sup> 2022년 가을 이후로 러시아 현지 사업 철수를 결단하는 경우가 증가했는데,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는 문제 외에도 공급망의 혼란 등 물리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전쟁 초기에 비해 철수 결단을 내리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이 유독 사할린 프로젝트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왜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일 간 에너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왜인가?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서 사할린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본 연구는 글로벌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일본의 에너지 관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사할린 프로젝트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본 연구는 경제산업성의 <통상백서>,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이 발간하는 이른바 ‘에너지 백서’로 불리는 <에너지에 관한 연차보고서>, 외무성의 <외교청서>와 같은 일본 정부 발간 자료는 물론 국회의원사록, 언론 보도, 관련 전문가들의 기고나 인터뷰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할린 프로젝트 계속의 논리와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장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일본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면서 본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도출한다. 3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 일본의 에

7 菱川奈津子,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から1年, 在ロシア進出日系企業の6割が事業停止」, 『日貿易振興機構』, 2023. 2. 20., <https://www.jetro.go.jp/biznews/2023/02/f7295cfd66ee3b05.html>(최종 검색일: 2023. 7. 7.).

8 「【ウ侵攻1年】日本企業の16% ロシア事業「撤退」へ 侵攻長期化, 「脱ロシア」1年で2倍に増加」, 『Yahoo News』, 2023. 2. 20., <https://news.yahoo.co.jp/articles/618c0cf9de73fe3828331614b55456c20cdc897a?page=1>(최종 검색일: 2023. 3. 12.).

너지 정책과 가스가 중요해진 상황, 러-일 관계 및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서 러시아산 가스와 사할린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 등을 해설한다. 4장은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도 사할린 프로젝트에서 철수하지 않는 논거에 대해 분석하고 2장에서 소개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이러한 정책적 결정에 가담하는 행위자들을 분석한다. 마지막 5장은 이 논문의 분석이 발견한 점과 그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하도록 하겠다.

## 2. 선행연구 및 분석틀

일본 에너지 정책의 결정 과정에 관해 분석한 연구 중 사무엘스(Samuels)는 일본 정부를 ‘보증인’(guarantor)으로 묘사한다. 사무엘스는 일본 정부가 시장과의 ‘상호주의적 동의’(reciprocal consent) 혹은 일정 정도의 동조를 바탕으로 재정적인 수단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하거나 시장 내에서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꾸려 나간다고 해설하였다.<sup>9</sup> 사무엘스는 존슨(Johnson)의 ‘발전국가론’<sup>10</sup>과는 다소 관점을 달리하여 일본 정부가 시장에서 충돌하는 이익을 조율하는 일종의 조정자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존슨이 제시한 소위 ‘관료지배모델’을 부인하고, 관민 간의 보다 협동적인 관계를 묘사하기 위하여<sup>11</sup> 위와 같은 개념을 제시하였던 것이다.<sup>12</sup> 오키모토(Okimoto) 역시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방식보다는 선택적이고 동태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sup>13</sup>는 차원에서 존슨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사무엘스와 오키모토는 정부와 민간 산업계의 상호작용을 조명

9 Richard Samuels, *The Business of the Japanese State: Energy Markets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10 Cha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11 박철희,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일본정치연구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13권 3호, 2004, 4쪽.

12 Richard Samuels, *The Business of the Japanese State*, p. 8.

13 Daniel Okimoto, *Between MITI and the Market: Japanese Industrial Policy for High Technolog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했다는 차원에서 ‘정책네트워크론’으로 구분된다.<sup>14</sup>

한편 칼더(Calder)는 일본의 경제적 성공을 설명하는 데 국가 중심적인 분석을 제시하기보다는 민간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전략적 자본주의’(Strategic Capitalism)를 주장한 바 있다.<sup>15</sup> 앞서 언급한 사무엘스의 연구에 대해서도 칼더는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일본의 경제성장을 만들어 냈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토론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지만 존슨의 모델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sup>16</sup>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 칼더는 『보상의 서클』(*Circles of Compensation*)이라는 책에서 원자력에너지 분야를 사례로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그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1970년대 발생한 두 차례 석유 위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역설하면서,<sup>17</sup> 이를 계기로 원자력이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경위와 이를 둘러싼 ‘보상의 서클’(circles of compensation, 이하 CoC)을 제시한다. 칼더는 원자력 CoC 안에 (1) 에너지 정책의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 (2) 전력회사 및 관련 설비 제조업자들, (3)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 부지 주민들, (4) 에너지 족(族) 의원, (5) 유관 산업계 연합체, (6) 건설업, (7) 원전 유치 지역 지방정부, (8) 재처리 업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원자력으로 인해,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이하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비용은 원자력 CoC의 외부에 존재하는 (1) 사고 피해자들, (2) 어업 혹은 농업 종사자들, 그리고 (3) 일반 국민들에 전가되고 있다고 보았다(〈그림 1〉 참조).<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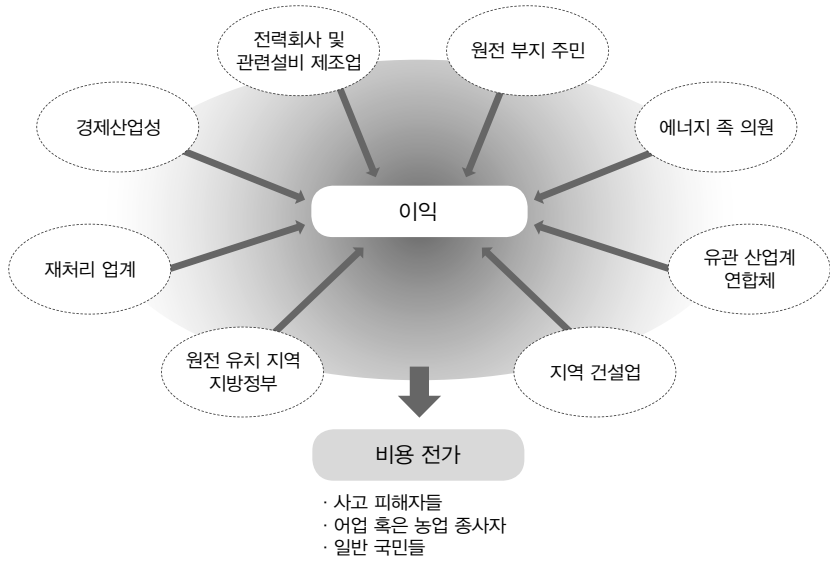
14 진창수, 「[서평] 일본정치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신제도주의적 접근」, 『지역연구』 4권 2호, 1995, 206쪽.

15 Kent E. Calder, *Strategic Capitalism: Private Business and Public Purpose in Japanese Industrial Fi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16 Kent E. Calder, "Reviewed Work: The Business of the Japanese State: Energy Markets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by Richard J. Samuels," *Journal of Japanese Studies* 15(1), 1989, pp. 221~222.

17 Kent E. Calder, *Circles of Compensation: Economic Growth and the Globalization of Jap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7, p. 116.

18 Kent E. Calder, *Circles of Compensation*, pp. 117~122.



〈그림 1〉 일본 내 원자력판 ‘보상의 서클’

주: Calder, *Circles of Compensation*, p. 118, 그림 7.5. (필자 번역)

본 연구는 칼더의 CoC를 분석틀로서 활용한다. 칼더는 사무엘스나 오키모토에 비해 다양한 행위자들을 동시에 조명하면서 그들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공유되는 경제적 이익(compensations)을 통해 느슨한 연합(circles)’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는 일본의 공공정책 분야 곳곳에 존재하는 CoC가 반복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전격적으로 수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9</sup> 원자력의 CoC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사후 처리 차원에서 조성되었다기보다 오히려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일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자력과 관련된 논쟁적인 결정들에 관한 정치·경제적인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고 합의를 도출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칼더는 전망하였다.<sup>20</sup> 뒤에서는 이러한 칼더의 분석틀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사할린 프로젝트에도

19 Kent E. Calder, *Circles of Compensation*, pp. 22~23.

20 Kent E. Calder, *Circles of Compensation*, p. 124.

적용해 보려 한다. 요컨대 이 논문은 에너지 중에서도 원자력 분야에 특화되었던 칼더의 분석틀이 다른 에너지원, 즉 가스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사할린 프로젝트를 통해 평가한다는 의미도 있다.

### 3. 우크라이나 전쟁 전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사할린 프로젝트

여기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서 가스의 중요성과 러일관계에서 사할린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에 대해 분석한다.

#### 1) 천연가스의 중요성

일본 에너지 정책의 요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S+3E'이다.<sup>21</sup> 일본은 에너지 정책에 최우선순위 고려 요소인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둘째로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셋째로 환경(Environmen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 '3E'를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침으로 삼아 왔는데,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안전성(Safety)이 모든 것에 앞선 대전제가 되었다.<sup>22</sup>

S+3E가 일본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이지만, 그중에서도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시 에너지 안보다. 이재승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과거에는 전쟁 수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전통적 안보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되어 왔지만, 전통적 안보로서의 에너지 개념은 시장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시장이 국제화하면서 그 적실성이 약화하였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도 과거에는 하위정치(low politics) 이슈로 분류되었지만, 점차 '안보'라는 상위정치(high politics) 개념과 연계되

21 竹内純子, 「ウクライナ侵攻と今後のエネルギー政策を考える」, 『国際経済連携推進センター』, 2022. 6. 9., <https://www.cfiec.jp/2022/0064-takeuchi/> (최종 검색일: 2023. 5. 12.).

22 資源エネルギー庁, 「日本のエネルギー 2021年度版 “エネルギーの今を知る10の質問”」, <https://www.enecho.meti.go.jp/about/pamphlet/energy2021/> (최종 검색일: 2023. 5. 11.).

면서 ‘에너지 안보’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그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상위개념으로 에너지 안보를 설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협력을 하위요소로 포함하기도 하고, 혹은 에너지 협력을 동북아시아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sup>23</sup> 뒤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본 연구는 이재승이 제시한 두 가지 중 전자, 즉 상위개념으로 에너지 안보를 우선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이 러시아와 일본의 에너지 관계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본다. 요컨대 일본은 에너지 문제를 보다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 이 논문의 관점이다.

한편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서 가스가 부상하게 되는 데에는 몇 번의 역사적 변곡점이 있다. 첫 번째는 고도성장기이며, 두 번째는 1973년과 1979년에 각각 발생한 1·2차 석유 위기다. LNG<sup>24</sup> 도입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두 차례의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일본은 중동산 석유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도모했고 이 시기 이후 일본의 1차 에너지 구성에서 가스의 비중은 서서히 늘어나게 된다.<sup>25</sup> 세 번째는 후쿠시마 사고다. 전력 생산의 20% 정도를 원자력에 의지하고 있던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전력 수급 계획을 대폭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sup>26</sup>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0년도 기준으로 가스가 일본의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9%에 달했다. 그 뒤를 석탄(31%), 신재생 등

23 이재승, 「에너지 안보와 동북아 협력: 하위정치 이슈에 대한 상위정치적 접근」, 『국제·지역연구』 14권 1호, 2005, 22~23쪽.

24 고도성장기인 1969년, 일본의 도쿄가스(東京ガス)와 도쿄전력(東京電力)은 세계 최초로 발전과 가스 사업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의 공동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 알래스카로부터 LNG 수입을 실현하였다.

25 일본의 1차 에너지 구성은 다음 자료 참조. 資源エネルギー庁, 『令和4年度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エネルギー白書2023)』, 東京: 経済産業省, 2023, 77쪽(그림 211-3-1).

26 후쿠시마 사고 발생 이후 일본은 모든 원전의 운전을 차례차례 정지시켰고,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무려 23개월간 원전 가동 없이 전력을 공급하였다.



(12%), 수력(7.8%), 석유 등(6.3%)이 이어 갔다. 더디지만 새로운 규제를 통과한 원자력들이 재가동을 승인받으면서 원자력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지만 2020년 기준으로 원자력의 비중은 불과 3.9% 수준에 머물렀다.<sup>27</sup> 전력 계통 상황 등 때문에 신재생 전력을 급속하게 확대할 수도 없으므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전력 생산은 결국 가스와 석탄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2020년도 기준으로 일본의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에너지 전환 부문이 무려 40%를 넘는데,<sup>28</sup> 이는 결국 전력 생산이 화석 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결과다.

요컨대 일본의 에너지 구성에 있어서 가스는 몇 가지 굵직한 사건들에 의해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고도성장기, 1970년대 석유 위기, 후쿠시마 사고를 겪으면서 일본의 가스 의존도는 커졌고, 가스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 변동성마저 커지자 그로 인해 일본 에너지 정책의 대원칙인 3E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가스 공급을 오롯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본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에너지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연료값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역시 커졌을 뿐 아니라 화석 연료 사용이 커지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도 녹록지 않게 되었다.

## 2) 러·일 에너지 관계, 그리고 사할린 프로젝트

러시아-일본 간 에너지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러일관계 전반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러일관계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처럼 글로벌 질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상위체계'(upper-system)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는 있다.<sup>29</sup> 양국 관계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27 資源エネルギー庁, 『エネルギー白書2023』, 107쪽(그림 214-1-6).

28 JCCCA(全国地球温暖化防止活動推進センター), 「日本の部門別二酸化炭素排出量(2020年度)」, <https://www.jccca.org/download/65477>(최종 검색일: 2023. 3. 14.).

29 윤익중·이성규, 「러시아와 일본의 전략적 관계발전의 요인 분석(2012~2017): SWOT 분석을 적용하여」, 『국제지역연구』 21권 5호, 2018, 134쪽.

때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쿠릴 열도 남단의 4개 섬<sup>30</sup>의 지위에 관한 문제였다. 1945년 소련이 이 섬들을 장악하며 지금까지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 섬들을 ‘북방영토’(北方領土)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두 나라 사이에는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오래된 영토 분쟁으로 남아 있다. 윤익중과 이성규는 국내외적으로 러일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이 쿠릴 열도 4개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에 관한 것이었다고 정리하고 있다.<sup>31</sup>

한편 일본과 러시아 간 무역액은 늘어나는 추세였다.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의 전체 수입액(\$581B)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9.32B)였다.<sup>32</sup> 그런데 전쟁 발발 전년도인 2021년 일본과 러시아의 무역액은 2020년 발생한 팬데믹 상황 때문에 축소되었던 것에서 서서히 회복하여, 2020년 대비 무려 35.7%의 성장을 보였으며,<sup>33</sup>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도 일본과 러시아의 무역액은 2021년보다도 6.2% 증가하여 약 2조 5,637억 엔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러시아 제재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러시아로의 수출액은 줄었지만, 세계적으로 자원 가격이 오르고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일본으로의 수입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4</sup>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일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석 연료, 그중에서도 가스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일본은 러시아의 최대 LNG 수입국이었으며,<sup>35</sup> 일본의 가스 무역에서도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졌

30 이투루프섬(일본명: 択捉島), 쿠나시르섬(일본명: 國後島), 시코탄섬(일본명: 色丹島), 하보마이 군도(일본명: 齒舞群島).

31 윤익중·이성규, 「러시아와 일본의 전략적 관계발전의 요인 분석(2012~2017)」, 136쪽.

32 OEC World, “The Best Place to Explore Trade Data,” <https://oec.world/en>(최종 검색일: 2023. 3. 12.).

33 外務省, 『令和4年版外交青書』, 東京: 外務省, 2022, 120쪽.

34 外務省, 『令和5年版外交青書』, 東京: 外務省, 2023, 143쪽.

35 2017년 기준으로 러시아산 LNG의 72.4%를 일본이 수입. 그 뒤를 한국(16.2%), 대만(9.8%), 중국(1.1%)이 차지했지만, 일본과의 격차가 매우 컸다. 한편 러시아 입장에서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의 제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계기로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본과의 무역은 정체 국면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經濟産業省, 『通商白書 2018』, 東京: 經濟産業省, 2018, 129쪽.

다. 후쿠시마 사고 전인 2009년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19.2%), 말레이시아(18.9%), 호주(18.7%), 카타르(12%), 브루나이(9%), UAE(7.6%), 러시아(6.5%) 순이었으나,<sup>36</sup> 그 양과 비중이 모두 늘어 2017년에는 러시아가 일본의 5대 교역국에 들어갔다.<sup>37</sup>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의 LNG 수입은 호주(39.2%), 말레이시아(12.9%), 카타르(11.2%), 러시아(8.2%) 순이었는데,<sup>38</sup> 2021년에는 총 가스 수입량(약 7,432만 톤)에서 러시아 비중이 8.8%까지 올라갔다.<sup>39</sup> 한편 원유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의 총 원유 수입량(약 248만 B/d(Barrel per day))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였고, 일본의 총 석탄 수입량(약 1억 8,260만 톤)에서 러시아 비중은 약 11%<sup>40</sup> 정도였다.<sup>41</sup>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Norweg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의 예니-린드그렌(Yennie-Lindgren)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사고와 러시아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으로 인해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이 가속화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취해진 일본의 제재는 양국 에너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sup>42</sup>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 근무 경력이 있는 애널리스트 사카이 사토시(酒井明司)는 일본이 러시아산 가스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여러 자원 중에서도 가스가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이 바로 가스이기 때문인데, 절대적으로 수입량이 늘어난 만큼 공급 측면에서 양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가격 역시 안정시키기 위해 일본은 수입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카이는 가스

36 日本ガス協会, 「天然ガスの取引量」, <https://www.gas.or.jp/tokucho/torihiki/> (최종 검색일: 2023. 3. 12.).

37 経済産業省, 『通商白書 2018』, 129쪽.

38 日本ガス協会, 「天然ガスの取引量」.

39 資源エネルギー庁 資源・燃料部, 『ウクライナ侵略等を踏まえた資源・燃料政策の今後の方向性』, 5쪽.

40 석탄의 비중이 가스보다 크긴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석탄은 의존도를 줄여 가야 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가스보다 더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1 資源エネルギー庁 資源・燃料部, 『ウクライナ侵略等を踏まえた資源・燃料政策の今後の方向性』, 5쪽.

42 Wrenn Yennie-Lindgren, "New Dynamics in Japan-Russia Energy Relations 2011~2017," *Journal of Eurasian Studies* 9(2), 2018, pp. 152~162.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다 보니 북미나 유럽의 허브 가격을 도출하는 산정식에 일본의 매입 가격을 연결시키거나 혹은 아예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산정식을 도출할 수 있도록,<sup>43</sup> LNG 매수처를 추가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44</sup> 가격 안정화를 추구하는 일본에 러시아 가스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냐는 질문 자체에 대한 사카이의 대답은 완전히 긍정적이지 않지만, 그의 연구가 일본이 러시아산 가스에 주목하게 된 동기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일본이 러시아산 가스에 주목하게 된 것은 후쿠시마 사고 때문만은 아니다. 니가타국제정보대학(新潟國際情報大學) 교수인 오자와 하루코(小澤治子)는 2001년 4월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이 탄생하면서 러일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체되었으나, 2003년 1월 고이즈미 총리가 러시아를 전격 방문하여 <러일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고 짚고 있다. 동 계획은 정치 대화의 심화, 평화조약 체결 교섭의 가속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무역이나 경제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 방위 및 안보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 문화 및 국민 간 교류의 진전, 이상 6개 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영토 문제에의 진전을 도출해 내려는 목적이 있었다.<sup>45</sup> 결국 양국 간 평화조약 체결은 이뤄지지 못한 채 2006년 9월 고이즈미의 뒤를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권하였지만, 제1기 아베 정권은 불과 1년 뒤 막을 내리고 만다.

그러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정권기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난다. 2009년 2월,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가 사할린 주의 LNG

43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 최대의 LNG 소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북미의 헨리 허브(Henry Hub)나 영국의 NBP(National Balancing Point), 네덜란드의 TTF(Title Transfer Facility)와 같은 지역 가격 거래 시스템이 부재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이를 이른바 “아시아 프리미엄” 현상이라고 한다. 안상욱, 「한국의 동북아 LNG 허브 구상의 실패요인 분석: 중일과의 협력 부재」, 『세계지역연구논총』 32집 3호, 2014, 85쪽.

44 酒井明司, 「ロシア・極東からのエネルギー資源輸出」, 『ロシア極東・シベリア地域開発と日本の経済安全保障』, 東京: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18, 46~47쪽.

45 小澤治子, 「21世紀の日ロ関係: 現状と展望」, 『ロシア極東・シベリア地域開発と日本の経済安全保障』, 東京: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18, 103~104쪽.

공장 가동식에 맞춰 사할린 주도(州都)인 유즈노사할린스크(Yuzhno-Sakhalinsk)를 방문하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이다. 물론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영토 문제의 구체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못했지만,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새롭고 독창적이며 형식에 구속받지 않는 접근”을 제안했다는 사실은 러일 양국 간에 있어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협력이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다고 오자와는 평가하고 있다.<sup>46</sup>

이런 흐름 속에서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와 그에 앞서 2012년 5월에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간의 특수한 관계가 사할린 프로젝트를 가속했다. 아베는 역대 최장인 7년 9개월에 달하는 제2기 내각 총리 재임 기간에 푸틴과 무려 27번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졌다.<sup>47</sup> 평균 두세 달에 한 번 회담할 만큼 두 지도자의 관계는 밀월관계로 알려져 있었는데, 두 정상이 공통으로 크게 관심을 가진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사할린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윤익중과 이성규는 푸틴 정권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견제하며 신동방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사할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사회적 개발과 일본의 북부지역 개발이라는 전략적 이익이 공유되면서 추진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핵심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sup>48</sup> 결국 사할린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일본이 각자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작동한 측면이 있다.

사할린 대륙붕에 매장되어 있는 막대한 자원에 대해서는 이미 20세기 전반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가혹한 기후조건, 채굴과 운반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에 어려움이 많아 오랫동안 소규모 개발에 멈춰 있었다. 그러다가

46 小澤治子, 「21世紀の日ロ関係: 現状と展望」, 104쪽.

47 鈴木宗男, 「なぜ安倍元首相はプーチンに会いに行かなかったのか…鈴木宗男“私に語っていた本当の理由”」, 『President Online』, 2022. 7. 26., <https://president.jp/articles/-/59866?page=1>(최종 검색일: 2023. 3. 15.).

48 윤익중·이성규, 「러시아와 일본의 전략적 관계발전의 요인 분석(2012~2017)」, 140쪽.

소련이 붕괴하고 경제적으로 혼란기를 겪으면서 러시아 정부가 외국자본을 도입해서 석유와 가스 개발을 진행하기로 결단하면서 1995년 6월 러시아 정부와 외국 회사 간에 생산물분여계약(PSA, Product Sharing Agreement)<sup>49</sup>이 체결되고 사할린 1·2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sup>50</sup>

사할린 1은 미국의 엑슨모빌(ExxonMobil)을 운영자로 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4개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Exxon Neftegas Limited)에 의해 운영되는 석유 중심의 프로젝트다. 사할린 1의 지분은 엑슨모빌과 일본의 프로젝트 회사인 사할린석유가스개발(SODECO, サハリン石油ガス開発)이 각각 30%씩, 러시아의 로스네프트(Rosneft)의 자회사와 인도의 국영 석유회사가 각각 20%씩 나눠 갖는 구조였으며, SODECO의 지분은 다시 경제산업성이 50%, 이토추그룹(伊藤忠グループ)이 16%, 석유자원개발(JAPEX, 石油資源開発)이 15%, 마루베니(丸紅)가 12%, 국제석유개발제석(INPEX, 国際石油開発帝石)이 6%를 나눠 갖는 구조였다.<sup>51</sup>

사할린 2는 영국·네덜란드의 셸(Shell), 일본의 미쓰이물산(三井物産)과 미쓰비시상사가 출자한 사할린 에너지 투자사(SEI, Sakhalin Energy Investment)가 사업 주체가 되어 있는 가스 중심의 프로젝트로서 러시아 최초의 LNG 사업이다. 사할린 2의 지분 구성은 러시아의 가스프롬(Gazprom)이 50%+1주, 셸이 27.5%-1주, 미쓰이물산이 12.5%, 미쓰비시상사가 10%로 되어 있었다.<sup>52</sup>

49 국가가 투자자에게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탐광, 시굴·채굴하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채취물(생산물)이 투자자와 국가 간에 분여되는 구조다. 유전과 가스전의 소유권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사할린 에너지는 이러한 유전의 탐사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다.

50 稚内市, 「サハリンプロジェクト」, <https://www.city.wakkanai.hokkaido.jp/sangyo/saharin/project/> (최종 검색일: 2023. 3. 12.); JAPEX, 「ロシア・サハリン1プロジェクト」, <https://www.japex.co.jp/business/oilgas/sakhalin1/> (최종 검색일: 2023. 3. 15.).

51 竹本能文, 「焦点: サハリン2でロシアが揺さぶり, 電力逼迫の日本に踏み絵」, 『ロイター』, 2022. 7. 2., <https://www.reuters.com/article/sakhalin-japan-russia-idJPKBN2OC2V2> (최종 검색일: 2023. 3. 15.); JAPEX, 「ロシア・サハリン1プロジェクト」.

52 稚内市, 「サハリンプロジェクト」; 竹本能文, 「焦点: サハリンでロシアが揺さぶり」.

## 4. 우크라이나 전쟁과 사할린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까지 일본이 내건 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2021년도판 에너지백서>에 의하면 일본은 에너지 안보, 바꿔 말해 에너지 자급률을 동일본대지진 전에 약 20% 수준이었던 것을 뛰어넘어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었다. 아울러 경제적 효율성, 특히 전력 생산비용을 동일본대지진 이후인 2013년도에 9조 7,000억 엔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2030년에는 8조 6,000~8,000억 엔 정도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다.<sup>53</sup>

이 장에서는 상기 목표를 세우고 있던 일본이 사할린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참여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전개했는지, 가스 사업에 해당하는 사할린 2를 둘러싼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 1) 전쟁 발발 후 사할린 프로젝트 경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불과 나흘 지난 2월 28일, 셸은 사할린 2를 포함하여 러시아와 관련된 사업들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sup>54</sup> 셸은 사할린 2에서 가스프롬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크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일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3월 31일 열린 제208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일본이 철수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사할린 2는 자국(일본)이 권익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저렴한 LNG의 안정적 공급에 공헌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상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G7도 각국이 저마다의 사정을 배려해, 지속가능한 대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

53 資源エネルギー庁, 「エネルギーの今を知る10の質問」.

54 Shell, "Shell Intends to Exit Equity Partnerships Held with Gazprom Entities," 2022. 2. 28., <https://www.shell.com/media/news-and-media-releases/2022/shell-intends-to-exit-equity-partnerships-held-with-gazprom-entities.html>(최종 검색일: 2023. 3. 12.).

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일본)는 철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G7의 방침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sup>55</sup>

기시다 총리의 위 발언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은 줄여나가더라도 사할린 2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서 모순적이다. 게다가 상술한 목표, 즉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책과도 배치된다. 그러나 일본은 스스로 모순을 만들면서도 철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서도 일본의 사업 계속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사사카와평화재단(笹川平和財団)의 아비루 다이스케(阿蘇泰助)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sup>56</sup>

그러던 중 6월 30일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제재 속에서 SEI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할 회사를 만들 것이라고 하자,<sup>57</sup> 일본은 충격에 빠진다. 푸틴은 사할린 2에 외국기업이 계속해서 참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운영회사를 러시아 정부가 새롭게 설립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고, 대통령령 모두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우호적이면서 국제법에 반하는 행동에 관하여 러시아의 국익을 지키겠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서방과 함께 제재를 강화해 온 일본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sup>58</sup>

동 대통령령에는 러시아 정부와 사할린 2의 운영 주체인 SEI 사이에 체

55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https://kokkai.ndl.go.jp/>.

56 CSIS, “RESOLVED: Japan Should Maintain Investments in Russian Oil and Gas Projects,” 2022. 6. 15., <https://www.csis.org/analysis/resolved-japan-should-maintain-investments-russian-oil-and-gas-projects>(최종 검색일: 2023. 3. 21.).

57 “Russia Will Replace Sakhalin-2 Project Operator with New Firm,” *Reuters*, 2022. 7. 1.,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russia-will-replace-sakhalin-2-project-operator-with-new-firm-2022-06-30/>(최종 검색일: 2023. 3. 12.).

58 「プーチン大統領 ‘サハリン2’ 主体をロシア企業へ 大統領令署名」, 『NHK』, 2022. 7. 1.,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701/k10013697111000.html>(최종 검색일: 2023. 3. 21.).



결된 PSA의 내용을 일부 외국기업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 러시아 정부가 SEI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것, (2) PSA에 따른 SEI의 자산을 즉시 러시아 정부로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새 회사로 PSA에 근거한 사할린 2의 무상 사용권이 양도될 것, (3) 새 회사의 권익에 대한 주식 분할이 정해질 때까지는 러시아 정부가 관리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sup>59</sup>

이어서 8월 5일, 러시아 정부는 운영사였던 SEI로부터 사업을 인수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에 권익을 유지하려면 새 운영사의 주식을 취득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이에 미쓰이물산의 신청이 이어졌고 러시아 정부는 8월 30일 미쓰이물산이 새 운영사에 출자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sup>60</sup> 아울러 러시아 정부는 미쓰비시상사에 대해서도 새 운영사에 대한 출자를 승인했다.<sup>61</sup> 일본의 두 기업은 새 운영사의 주식 중 각각 12.5%, 10%를 소유하게 되어 SEI 때와 같은 지분 구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비슷한 상황이 사할린 1에서도 반복됐다. 푸틴은 10월 7일, 사할린 1에 대해서도 새로운 운영사를 꾸리겠다는 법령에 서명하고, 새 회사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이전과 같은 출자 비율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기업은 러시아 정부에 신청하라는 결정을 내렸다.<sup>62</sup> 이어서 11월 15일, 러시아 정부는 일본이 이전과 같은 30%의 권익을 유지하는 것을 승인했다.<sup>63</sup>

한편 일본 정부는 2022년 9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원유 등

59 菱川奈津子, 「プーチン大統領, サハリン2運営主体の再編を命じる大統領令に署名」, 『日貿易振興機構』, 2022. 7. 4., <https://www.jetro.go.jp/biznews/2022/07/8396d0e8a4a7a67f.html> (최종 검색일: 2023. 3. 12.).

60 「‘サハリン2’新会社 ロシア政府が三井物産の株式取得を承認」, 『NHK』, 2022. 8. 31.,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831/k10013795821000.html> (최종 검색일: 2023. 3. 21.).

61 「‘サハリン2’新会社 三菱商事の出資を承認 ロシア政府」, 『NHK』, 2022. 9. 1.,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831/k10013797551000.html> (최종 검색일: 2023. 3. 21.).

62 「ロシア, サハリン1を新会社に移管 エクソンや日本など権益」, 『ロイター』, 2022. 10. 8., <https://jp.reuters.com/article/ukraine-crisis-russia-sakhalin-idJPKBN2R2220> (최종 검색일: 2023. 3. 21.).

63 「‘サハリン1’ロシア政府が新会社での日本の権益維持を承認」, 『NHK』, 2022. 11. 15., <https://www3.nhk.or.jp/news/html/20221115/k10013891461000.html> (최종 검색일: 2023. 3. 21.).

에 대한 가격상한제<sup>64</sup>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할린은 예외로 두었다. 일본 정부는 사할린 2에서 생산되는 가스에 대해서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상기 규제의 대상 밖이며, 따라서 사할린 2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수입이나 중개무역, 해운, 통관 등 모든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유사 입장 국가들로부터도 용인을 얻은 부분이라고 하였다.<sup>65</sup>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의 에너지 정책, 특히 사할린 프로젝트를 통해 도입하는 러시아산 LNG에 미친 영향은 단기적으로 볼 때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심지어 일본은 대러시아 제재와 사할린 프로젝트를 구분하는 이원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 2) 사할린 프로젝트 계속의 논리와 보상의 서클

일본이 사할린 프로젝트에서 철수하지 않는 논거는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일본은 에너지 안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혹자에게 이 주장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유럽,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일본보다 훨씬 더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고 있었음에도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단호한 결정들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할린에서 들여오는 러시아산 LNG가 과연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그렇게 중요한가?

위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선 일본의 미래 에너지 상황에서 가스가 갖는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자. 3장에서 해설하였다시피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서 가스는 세 번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통과하며 그 중요도가 커졌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앞으로도 이를 극적으로 줄이기가 쉽지 않다.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에너지 기본계획>

64 G7과 유럽연합은 2022년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등이 일정한 가격(배럴당 60달러)을 초과할 경우, 해상 운송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제재의 효과가 약하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2023년 2월 5일부터 러시아산 디젤 등 정유 제품에 대해서도 가격상한제(배럴당 100달러)를 추가 시행했다.

65 外務省, 『令和4年版外交青書』, 東京: 外務省, 2022, 11쪽.

을 꼽을 수 있다. 2021년 10월에 <6차 기본계획><sup>66</sup>이 수립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 아직 7차 기본계획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6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6차 기본계획은 2030년 전원구성(약 9,340억 kWh로 전망)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36~38%로 늘어나고, 원자력 비중이 20~22%로 후쿠시마 사고 전 수준까지 회복된다고 하여도 가스 화력발전이 여전히 2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다 보니 2030년 1차 에너지 구성에서도 가스의 비중이 대략 18%가 된다.<sup>67</sup>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가스를 대체할 만한 다른 저탄소 에너지원의 비중이 빠르게 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2022년에도 일본의 원전 이용률은 여전히 매우 낮았는데, 동년도 일본 국내 원전의 설비이용률은 전년(22.1%)보다도 3.4 포인트 감소하여 불과 18.7%에 그쳤다. 또한 동 연도에 강화된 규제 기준을 통과하여 새롭게 재가동한 플랜트는 없었으며, 2023년 1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는 10기에 불과하다.<sup>68</sup> 재생에너지는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2020년도 기준으로 전원구성의 19.8%가량), 6차 기본계획이 제시한 수준(36~38%)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일본 정부 스스로가 “야심찬”이라 표현할 정도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sup>69</sup> 특히 서론에서 언급한 정치경제 상황에 의해 당분간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의 공급망 안정이나 설비투자 확대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상기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설사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재생에너지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 즉 기후 상황에 따른 간헐성(intermittency)으로 인해 발전단가의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

66 일본은 2003년 10월 1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7년 3월에 2차, 2010년 6월에 3차, 2014년 4월에 4차, 2018년 7월에 5차를 수립했다.

67 松本貴宏 他, 「第6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の策定」, 『RESEARCH BUREAU 論究』 第18号, 2021년 12월, 174~175쪽.

68 「2022年の国内原子力発電 設備利用率は18.7%」, 『原子力産業新聞』, 2023. 1. 17., <https://www.jaif.or.jp/journal/japan/16170.html>(최종 검색일: 2023. 3. 11.).

69 資源エネルギー庁, 『今後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政策について』, 東京: 経済産業省, 2022, 4쪽.

문에,<sup>70</sup>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화력발전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단기적으로 여전히 크고, 현재 전력 생산은 40% 가까이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일본에서는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산업계, 정계, 관련 전문가들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사할린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할린으로부터 들어오는 러시아산 LNG가 일본의 가스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9~10%인 것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은 이 부분이 수입원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어서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9~10%라는 숫자가 크지 않아 보여도 막상 이 부분이 없어진다면 이것을 어디에서 다시 채울 것이냐는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할린 프로젝트는 에너지 구성 전체의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71</sup>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日本エネルギー経済研究所)의 전무이사인 고야마 겐(小山堅)은 “일본은 미국처럼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유럽만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지만,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에너지 안정공급의 관점에서 말하면 일본은 매우 취약하다. 공급원의 분산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 중 하나가 사할린 프로젝트다.”라고 역설하고 있다.<sup>72</sup>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미국산 LNG 수입이 늘어나는 등<sup>73</sup> 가스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10%라도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다면 이는 에너지 안보에 이바지한다고 보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둘째, 에너지 안보와 더불어 사할린으로부터 들어오는 LNG가 가스 가

70 松本貴宏 他, 「第6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の策定」, 176~177쪽.

71 新谷時子, 「なぜ日本は『ロシア権益』から撤退しないのか. 内部文書から見るエネルギー安保と国益」, 『テレ朝 News』, 2022. 4. 6., [https://news.tv-asahi.co.jp/news\\_international/articles/000250642.html](https://news.tv-asahi.co.jp/news_international/articles/000250642.html) (최종 검색일: 2023. 3. 30.); 「サハリン2権益問題 エネルギーで揺さぶるロシア: 日本のエネルギー戦略を検証」, 『TBS News』, 2022. 7. 23., <https://youtu.be/XPIxPwtFB64> (최종 검색일: 2023. 3. 12.).

72 馬場未希, 「『脱ロシア依存と脱炭素, 絶妙な両立を』日本エネ研・小山氏に聞く」, 『日経ビジネス』, 2022. 3. 16., <https://business.nikkei.com/atcl/gen/19/00159/031400046/> (최종 검색일: 2023. 3. 14.).

73 (U.S.)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U.S. Natural Gas Exports and Re-Exports by Country,” 2023. 2. 28., [https://www.eia.gov/dnav/ng/ng\\_move\\_exp\\_s1\\_a.htm](https://www.eia.gov/dnav/ng/ng_move_exp_s1_a.htm) (최종 검색일: 2023. 3. 14.).

天然ガス・LNG価格推移 (直近2年)



〈그림 2〉 천연가스와 LNG 가격 추이(최근 2년)<sup>74</sup>

주: JKM은 Japan Korea Marker로, 한국과 일본으로 운반되는 LNG 현물가격 지표, HH는 북미지역의 대표적인 가격지표인 헨리 허브(Henry Hub) 가격, TTF(Title Transfer Facility)는 유럽의 가스 가격 지표, JKM이 통상적으로 후자들보다 높은 것을 두고 '아시아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각주 43 참조.

격안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림 2〉는 일본에서의 가스 가격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실제로 일본 평균 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도 JKM 가격보다 낮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할린 2에서 들여오는 LNG 수입이 장기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일본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산 LNG 가격은 영국 열량 단위(BTU, British thermal unit)당 14달러 수준이었으나, 소위 말하는 현물 가격(spot price)은 전쟁 이후 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본의 가스와 전력 업계에서는 사할린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이 가격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sup>75</sup> 국제환경경제연구소(國際環境經濟研究所) 이사인 다케우치 준코(竹内純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총력전을 펼칠 필요가 있지만,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 화

74 JOGMEC(エネルギー・金属鉱物資源機構), 「2023年3月-石油・天然ガス資源情報」, <https://oil-gas-info.jogmec.go.jp/nglng/1007905/1009678.html>(최종 검색일: 2023. 3. 30.).

75 新谷時子, 「なぜ日本は'ロシア権益'から撤退しないのか」.

석 연료 장기계약의 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76</sup>

2022년 8월 10일부터 경제산업 대신을 맡고 있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는 9월 6일 있었던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온 사할린 프로젝트 계속의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 양 회사가 러시아 정부나 사할린 2의 새 회사에 사업 참가 계속을 위한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승인 결정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나라(일본)의 에너지 안정공급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주들 간에도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민간기업 측과 의사소통을 잘 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응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sup>77</sup>

민간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그 이익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주무 부처 장관이자 유력 정치인이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민간의 이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인식인데, 민간의 이익은 곧 이미 체결된 장기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것과 가격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함의한다.

셋째, 일본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도 사할린 철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이 사할린에서 철수하지 않는 것이 대러시아 제재 기조와 상충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이자 2022년 8월 초까지 경제산업 대신이었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도 사할린 1·2에 대하여 “(일본이 철수했을 때) 제3국이 바로 그것을 취하여 러시아에게 고통을 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라며 사할린 철수가 대러시아 제재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중국을 의식한

76 竹内純子, 「ウクライナ侵攻と今後のエネルギー政策を考える」.

77 経済産業省, 「西村経済産業大臣の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 2022. 9. 6., <https://www.meti.go.jp/speeches/kaiken/2022/20220906001.html>(최종 검색일: 2023. 5. 11.).

듯한 발언을 해 화제가 됐다.<sup>78</sup> 더군다나 일본이 러시아산 LNG 수입을 멈추면 그 분량을 러시아가 오히려 높은 현물 가격에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도 있어서 이 역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제재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논리다. 포스트석유전략연구소(ポスト石油戦略研究所) 대표인 오바 노리아키(大場紀章)도 중국이나 인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중동, 중남미 국가들까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에너지 거래를 계속하고 있느니만큼 자원이 없는 일본 같은 나라가 “사지 않겠다”라는 방침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79</sup>

이에 더해 만약 일본이 사할린에서 철수하게 되면 결국 이 시설과 일본 기업들의 지분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설득 논리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 셸이 사할린 2로부터 철수하면서 중국의 에너지 기업집단에 매각하기 위한 교섭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상공회의소(日本商工会議所)를 비롯하여 관련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sup>80</sup> 사할린 1에서 철수하기로 한 BP나 엑슨모빌의 지분에 대한 매수도 중국 기업집단이 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업계에서는 경계심이 더 확산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와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 가스관을 이미 연결하고 있고, 이를 사할린 쪽과 연결하려는 공사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할린 2에서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Eastern Siberia - Pacific Ocean) 2’를 향해 깔린 파이프라인에 중계 지점을 마련해 중국 국경 내에 끌어들이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인데, 이 라인이 완성되면 중국 국내 각지로 사할린 가스를 보낼 수 있다. ESPO 2의 북쪽 구간과 중앙 구간은 이미 가동 중이며 남쪽 구간만이 아직 건설 중인데, 가스 수요는 상하

78 新谷時子, 「なぜ日本は‘ロシア権益’から撤退しないのか」.

79 大場紀章, 「ウクライナ戦争がもたらす世界エネルギー新秩序」, 『中東協力センターニュース』 9月号, 2022, 24쪽.

80 環境金融研究機構, 「シェルが撤退を宣言したロシア・サハリン II の権益で, 中国企業との売却交渉が判明」, 2022. 4. 22., <https://rief-jp.org/ct10/124540>(최종 검색일: 2023. 3. 30.); 「サハリン2日本撤退なら, “LNGは中国に行く”…日商会頭「考慮して結論を」」, 『読売新聞オンライン』, 2022. 3. 4., <https://www.yomiuri.co.jp/economy/20220303-OYT1T50271/>(최종 검색일: 2023. 3. 30.).

이시(上海市)와 광둥성(廣東省) 지역에서 높으므로 사할린에서 시작된 가스관의 최종목적지는 이 지역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중국문제글로벌연구소(中國問題グローバル研究所) 소장인 엔도 호마레(遠藤譽)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sup>81</sup>

한편 2023년 2월 8일에 열린 제211회 국회 참의원 ‘자원에너지·지속가능사회에 관한 조사회’에서 이뤄진 논의를 보면 러시아가 일본이 철수하면 그 분량을 중국에게 넘기겠다고 위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도, 실제로는 외국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일본이 철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히로세 요코(廣瀬陽子)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学) 교수에 의해 제시되기도 했다.<sup>82</sup> 위와 같은 주장들을 취합해 보면 일본이 사할린 프로젝트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치열한 지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위의 논거들과는 별도로 좀 더 낮은 수준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지역 가스 회사들이 사할린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히로시마가스(広島ガス)를 꼽을 수 있다. 히로시마 가스는 가스 조달량의 무려 50%를 사할린 2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결국 히로시마가스는 지난(2022년) 11월 7일 사할린 2의 새로운 운영사로부터 지금까지와 같은 조건으로 LNG를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전 SEI와 계약하고 있던 연간 최대 21만t, 최장 2028년까지 구매하는 조건이 새 회사로도 계승되었다는 것이다.<sup>83</sup> 동 회사는 기시다 총리의 지역적 기반인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대기업<sup>84</sup>으로, 역대 회장은 기시다의 지역구인 히로시마 1구의 자민당 지부에 2020년까지 후원도 하고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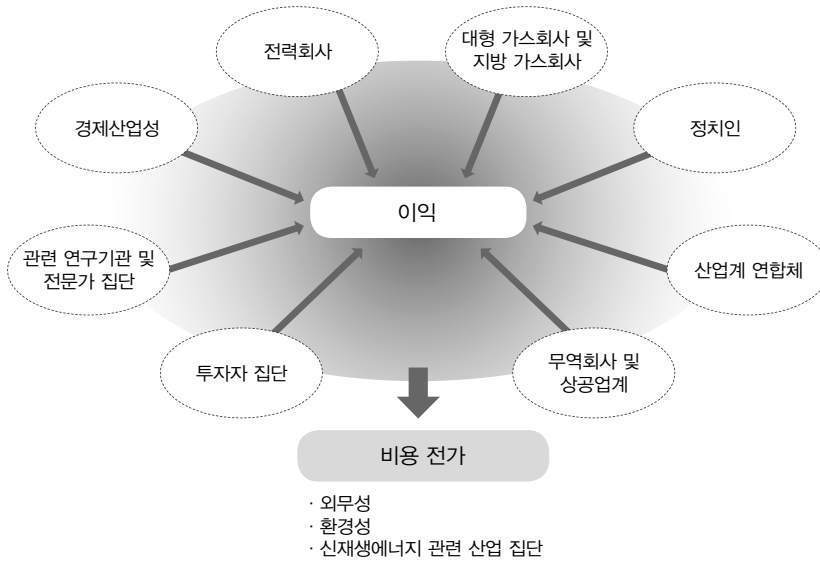
81 遠藤譽, 「‘サハリン2’, プーチン大統領令と習近平の狙い」, 『Yahoo News』, 2022. 7. 6., <https://news.yahoo.co.jp/byline/endohomare/20220706-00304360>(최종 검색일: 2023. 3. 30.).

82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https://kokkai.ndl.go.jp/>.

83 「広島ガス, サハリン2新会社からの調達順調」, 『日本経済新聞』, 2022. 11. 7.,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076ZZ0X01C22A1000000/>(최종 검색일: 2023. 3. 30.).

84 김중도비율(CR)로 따졌을 때 히로시마가스는 8위 수준이다. 채제용, 「[정책 in] 한·일 가스산업 데이터로 본 시사점 연구」, 『이투뉴스』, 2023. 1. 5.,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166>(최종 검색일: 2023. 3. 11.).





〈그림 3〉 사할린 프로젝트의 '보상의 서클'

던 것으로 나타났다.<sup>85</sup> 사할린 2의 새 운영사와는 도쿄전력과 주부전력(中部電力)이 반반 출자하여 설립한 합작투자회사 JERA나 도쿄가스 등도 순차적으로 계약을 맺었고, 2023년 1월 17일에는 오사카가스(大阪ガス)까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할린 프로젝트 관련 일본 기업들은 모두 사할린 2의 신 운영사와 조달 계약을 마무리하게 되었다.<sup>86</sup>

위의 분석을 칼더의 CoC 분석틀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은 행위자들을 열거할 수 있다. (1) (자원에너지청을 산하에 둔) 주무 부처 경제산업성, (2) 전력회사, (3) 대형 가스회사 및 지방 가스회사, (4) 정치인, (5) 유관 산업계 연합체, (6) 무역회사 및 상공업계, (7) 투자자 집단, (8)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집단이 그것이다. 〈그림 3〉은 사할린 프로젝트의 '보상의 서클'을

85 「岸田首相のお膝元「広島ガス」もピンチに…プーチンが弄ぶ「サハリン2」日本にもたらす大打撃」, 『週刊現代』, 2022. 8. 27., <https://gendai.media/articles/-/98828?page=2>(최종 검색일: 2023. 3. 30.).

86 「大阪ガス サハリン2めぐり ロシア新会社とLNGの契約」, 『NHK』, 2023. 1. 17., <https://www3.nhk.or.jp/kansai-news/20230118/2000070074.html>(최종 검색일: 2023. 3. 30.).

도식화한 것이다.

결국 이들이 사할린 프로젝트를 계속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공유하는 느슨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11월 4일 열린 제 210회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니시무라 대신은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의 엔도 료타(遠藤良太) 의원의 질의에 “사할린 2로부터 LNG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중략) 국민이 일체가 되어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sup>87</sup> 니시무라의 발언은 러시아산 LNG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사이에 이견이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사할린 프로젝트에 투자한 기업들, 프로젝트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 정부, 그리고 수입 장기계약을 맺은 기업들이나 유관 산업계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성, 그리고 전략적 이익이라는 논거가 제시되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일본의 결정에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sup>88</sup>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올리아 스비리덴코(Yulia Svyrydenko) 부총리는 “러시아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는 돈을 대주는 것”이라며 일본의 철수를 종용한 바 있다.<sup>89</sup> 러시아가 언제든지 비우호국에 대해서 일방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걱정이다. 2023년 G7 정상회의 개최국인 일본이 G7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것으로 비쳐 국제사회에서 받을 비판도 우려스럽다.<sup>90</sup> 이런 부담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외무성 같은 조직에 전가될 수 있다.

87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https://kokkai.ndl.go.jp/>.

88 CSIS, “RESOLVED: Japan Should Maintain Investments in Russian Oil and Gas Projects.”

89 Maily Pene-Lassus, “Japan Should Exit Sakhalin Energy Projects: Ukraine 1st Deputy PM,” *Nikkei Asia*, 2022. 5. 25., <https://asia.nikkei.com/Politics/Ukraine-war/Japan-should-exit-Sakhalin-energy-projects-Ukraine-1st-deputy-PM> (최종 검색일: 2023. 3. 30.).

90 新谷時子, 「なぜ日本は「ロシア権益」から撤退しないのか」; 大場紀章, 「ウクライナ戦争がもたらす世界エネルギー新秩序」; 大場紀章, 「エネルギー地政学の重要な変化」, 『公研』1月号, 2023.

또한 일본이 사할린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것은 일본이 중장기적으로도 가스 의존적인 사회로 남게 되리라는 것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 가스가 석탄보다 청정하다고(cleaner) 여겨지더라도, 이 역시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가스에 의존하면 할수록 환경이라는 일본 에너지 정책의 세 번째 원칙은 훼손된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더디게 하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환경성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탈러시아산 가스라는 정책적 결단과 함께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거나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굳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이다.<sup>91</sup>

##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러-일 간 에너지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할린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네트워크, 즉 그들의 보상의 서클이 이미 내려진 결정을 반복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었다. 사할린 프로젝트에 얽혀 있는 CoC의 구성원은 유력 정치인들부터,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 기업들, 일본 정부,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들은 에너지 안보, 경제성, 전략적 이익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할린 프로젝트 계속을 관철했다.

일본이 참여하는 또 다른 러시아 가스 사업인 야말 프로젝트에서도 일본이 발을 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스미가세키(震が関)적인 행태’, 요컨대 과거의 결정에 대해 반복하는 것을 꺼리는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일본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일본의 결정이 전략적 인내라기보다 위기 대응에 민첩하지 못한 탓은 아니냐는 일본 거버넌스에

91 CSIS, "RESOLVED: Japan Should Maintain Investments in Russian Oil and Gas Projects."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거론되곤 한다.<sup>92</sup> 그러나 이런 경로의존성은 일본의 ‘습관’이라기보다는 이익을 내재화하고 비용을 외부로 돌리는 CoC가 기제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발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앞으로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일본의 대러시아 에너지 정책 및 사할린 프로젝트에 관한 결정이 경로의존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리라 전망한다. 이는 러시아가 수출국이고 일본은 수입국이라는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자원의 비대칭성 때문이라기보다 일본 내부에서 작동하는 CoC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92 新谷時子, 「なぜ日本は‘ロシア権益’から撤退しないのか」.

##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일 간 에너지 관계: 사할린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 임은정

- 박철희,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일본정치연구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13권 3호, 2004.
- 안상욱, 「한국의 동북아 LNG 허브 구상의 실패요인 분석: 중일과의 협력 부재」, 『세계지역연구논총』 32집 3호, 2014.
- 윤익중·이성규, 「러시아와 일본의 전략적 관계발전의 요인 분석(2012~2017): SWOT 분석을 적용하여」, 『국제지역연구』 21권 5호, 2018.
- 이재승, 「에너지 안보와 동북아 협력: 하위정치 이슈에 대한 상위정치적 접근」, 『국제·지역연구』 14권 1호, 2005.
- 진창수, 「[서평] 일본정치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신제도주의적 접근」, 『지역연구』 4권 2호, 1995.
- 채재용, 「[정책 in] 한·일 가스산업 데이터로 본 시사점 연구」, 『이투뉴스』, 2023. 1. 5.,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166>(최종 검색일: 2023. 3. 11.).
- 新谷時子, 「なぜ日本は'ロシア権益'から撤退しないのか, 内部文書から見るエネルギー安保と国益」, 『テレ朝 News』, 2022. 4. 6., [https://news.tv-asahi.co.jp/news\\_international/articles/000250642.html](https://news.tv-asahi.co.jp/news_international/articles/000250642.html)(최종 검색일: 2023. 3. 30.).
- 「【ウ侵攻1年】日本企業の16% ロシア事業「撤退」へ 侵攻長期化, 「脱ロシア」1年で2倍に増加」, 『Yahoo News』, 2023. 2. 20., <https://news.yahoo.co.jp/articles/618c0cf9de73fe3828331614b55456c20cdc897a?page=1>(최종 검색일: 2023. 3. 12.).
- 遠藤誉, 「'사할린2', 푸ーチン大統領令と習近平の狙い」, 『Yahoo News』, 2022. 7. 6., <https://news.yahoo.co.jp/byline/endohomare/20220706-00304360>(최종 검색일: 2023. 3. 30.).
- 「大阪ガス 사할린2めぐ리 러시아新会社とLNGの契約」, 『NHK』, 2023. 1. 17., <https://www3.nhk.or.jp/kansai-news/20230118/2000070074.html>(최종 검색일: 2023. 3. 30.).
- 大場紀章, 「ウクライナ戦争がもたらす世界エネルギー新秩序」, 『中東協力センターニュース』 9月号, 2022.
- 大場紀章, 「エネルギー地政学の重要な変化」, 『公研』 1月号, 2023.
- 小澤治子, 「21世紀の日ロ関係: 現状と展望」, 『ロシア極東・シベ리아地域開発と日本の経済安全保障』, 東京: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18.
- 環境金融研究機構, 「シェルが撤退を宣言したロシア・사할린Ⅱの権益で, 中国企業との売却交渉が判明」, 2022. 4. 22., <https://rief-jp.org/ct10/124540>(최종 검색일: 2023. 3. 30.).
- 外務省, 『令和4年版外交青書』, 東京: 外務省, 2022.
- 外務省, 『令和5年版外交青書』, 東京: 外務省, 2023.
- 「岸田首相 戦地 ウクライナ電撃訪問 こうして実現した」, 『NHK政治マガジン』, 2023. 3. 22.,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97138.html>(최종 검색일: 2023. 3. 25.).
- 「岸田首相のお膝元“広島ガス”もピンチに…プーチンが弄ぶ‘사할린2’日本にもたらす大打撃」, 『週刊現代』, 2022. 8. 27., <https://gendai.media/articles/-/98828?page=2>(최종 검색일: 2023. 3. 30.).
- 「岸田首相, 러시아를名指しで非難へ…国連総会で一般討論演説」, 『読売新聞』, 2022. 9. 21.,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20920-OYT1T50203/>(최종 검색일: 2023. 3. 12.).
- 經濟産業省, 『通商白書 2018』, 東京: 經濟産業省, 2018.
- 經濟産業省, 「西村經濟産業大臣の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 2022. 9. 6., <https://www.meti.go.jp/>

- speeches/kaiken/2022/20220906001.html(최종 검색일: 2023. 5. 11.).
-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https://kokkai.ndl.go.jp/>.
- 酒井明司, 「ロシア・極東からのエネルギー資源輸出」, 『ロシア極東・シベリア地域開発と日本の経済安全保障』, 東京: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18.
- 佐々木類, 「ロシアの侵略11年 国際法違反の非道を各紙が批判 産経 “岸田首相はキーウ訪問を”」, 『産経新聞』, 2023. 3. 1.,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301-2KQKFEFRQBKRVEOA25JM2QSV6Y/>(최종 검색일: 2023. 3. 12.).
- 「‘サハリン1’ロシア政府が新会社での日本の権益維持を承認」, 『NHK』, 2022. 11. 15., <https://www3.nhk.or.jp/news/html/20221115/k10013891461000.html>(최종 검색일: 2023. 3. 21.).
- 「サハリン2 権益問題 エネルギーで揺さぶるロシア-日本のエネルギー戦略を検証」, 『TBS News』, 2022. 7. 23., <https://youtu.be/XPIxPwtFB64>(최종 검색일: 2023. 3. 12.).
- 「‘サハリン2’新会社 三菱商事の出資を承認 ロシア政府」, 『NHK』, 2022. 9. 1.,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831/k10013797551000.html>(최종 검색일: 2023. 3. 21.).
- 「‘サハリン2’新会社 ロシア政府が三井物産の株式取得を承認」, 『NHK』, 2022. 8. 31.,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831/k10013795821000.html>(최종 검색일: 2023. 3. 21.).
- 「サハリン2 日本撤退なら, “LNGは中国に行く”…日商会頭「考慮して結論を」」, 『読売新聞オンライン』, 2022. 3. 4., <https://www.yomiuri.co.jp/economy/20220303-OYT1T50271/>(최종 검색일: 2023. 3. 30.).
- 資源エネルギー庁, 「日本のエネルギー 2021年度版 “エネルギーの今を知る10の質問”」, <https://www.enecho.meti.go.jp/about/pamphlet/energy2021/>(최종 검색일: 2023. 5. 11.).
- 資源エネルギー庁, 『今後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政策について』, 東京: 経済産業省, 2022.
- 資源エネルギー庁, 『令和4年度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エネルギー白書2023)』, 東京: 経済産業省, 2023.
- 資源エネルギー庁 資源・燃料部, 『ウクライナ侵略等を踏まえた資源・燃料政策の今後の方向性』, 東京: 経済産業省, 2022.
- 鈴木宗男, 「なぜ安倍元首相はプーチンに会いに行かなかったのか…鈴木宗男「私に語っていた本当の理由」」, 『President Online』, 2022. 7. 26., <https://president.jp/articles/-/59866?page=1>(최종 검색일: 2023. 3. 15.).
- 竹内純子, 「ウクライナ侵攻と今後のエネルギー政策を考える」, 『国際経済連携推進センター』, 2022. 6. 9., <https://www.cfiec.jp/2022/0064-takeuchi/>(최종 검색일: 2023. 5. 12.).
- 竹本能文, 「焦点: サハリン2でロシアが揺さぶり, 電力逼迫の日本に踏み絵」, 『ロイター』, 2022. 7. 2., <https://www.reuters.com/article/sakhalin-japan-russia-idJPKBN2OC2V2>(최종 검색일: 2023. 3. 15.).
- 馬場未希, 「脱ロシア依存と脱炭素, 絶妙な両立を」日本エネ研・小山氏に聞く」, 『日経ビジネス』, 2022. 3. 16., <https://business.nikkei.com/atcl/gen/19/00159/031400046/>(최종 검색일: 2023. 3. 14.).
- 菱川奈津子, 「プーチン大統領, サハリン2運営主体の再編を命じる大統領令に署名」, 『日貿易振興機構』, 2022. 7. 4., <https://www.jetro.go.jp/biznews/2022/07/8396d0e8a4a7a67f.html>(최종 검색일: 2023. 3. 12.).
- 菱川奈津子,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から1年, 在ロシア進出日系企業の6割が事業停止」, 『日貿易

- 振興機構』, 2023. 2. 20., <https://www.jetro.go.jp/biznews/2023/02/f7295cfd66ee3b05.html>(최종 검색일: 2023. 7. 7.).
- 「広島ガス, サハリン2新会社からの調達順調」, 『日本経済新聞』, 2022. 11. 7.,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076ZZ0X01C22A1000000/>(최종 검색일: 2023. 3. 30.).
- 「プーチン大統領 ‘サハリン2’ 主体をロシア企業へ 大統領令署名」, 『NHK』, 2022. 7. 1.,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701/k10013697111000.html>(최종 검색일: 2023. 3. 21.).
- 松本貴宏·金谷雅姫子·奥山龍太郎, 「第6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の策定」, 『RESEARCH BUREAU 論究』 第18号, 2021.
- 日本ガス協会, 「天然ガスの取引量」, <https://www.gas.or.jp/tokucho/torihiki/>(최종 검색일: 2023. 3. 12.).
- 「ロシア, サハリン1を新会社に移管 エクソンや日本など権益」, 『ロ이터』, 2022. 10. 8., <https://jp.reuters.com/article/ukraine-crisis-russia-sakhalin-idJPKBN2R2220>(최종 검색일: 2023. 3. 21.).
- 「ロシア産石油 原則禁輸 岸田首相「削減時期 実態踏まえ検討」」, 『NHK』, 2023. 5. 9.,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509/k10013616771000.html>(최종 검색일: 2023. 5. 5.).
- 稚内市, 「サハリンプロジェクト」, <https://www.city.wakkanai.hokkaido.jp/sangyo/saharin/project/>(최종 검색일: 2023. 3. 12.).
- 「【Japan Data】貿易赤字, 過去最大の19.9兆円-2022年: 資源高に円安が拍車」, 『Yahoo News』, 2023. 1. 20., <https://news.yahoo.co.jp/articles/1d8ba064cf793673fb85a819f951f73d8143d873>(최종 검색일: 2023. 3. 11.).
- JAPEX(石油資源開発株式会社), 「ロシア・サハリン1プロジェクト」, <https://www.japex.co.jp/business/oilgas/sakhalin1/><https://www.japex.co.jp/business/oilgas/sakhalin1/>(최종 검색일: 2023. 3. 15.).
- JCCCA(全国地球温暖化防止活動推進センター), 「日本の部門別二酸化炭素排出量(2020年度)」, <https://www.jccca.org/download/65477>(최종 검색일: 2023.03.14.).
- JOGMEC(에너지·金屬·鎂物資源機構), 「2023년3월: 石油·天然가스 자원정보」, <https://oilgas-info.jogmec.go.jp/nglng/1007905/1009678.html>(최종 검색일: 2023. 3. 30.).
- 「2022年の国内原子力発電 設備利用率は18.7%」, 『原子力産業新聞』, 2023. 1. 17., <https://www.jaif.or.jp/journal/japan/16170.html>(최종 검색일: 2023. 3. 11.).
- Calder, Kent E., *Strategic Capitalism: Private Business and Public Purpose in Japanese Industrial Fi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 Calder, Kent E., “Reviewed Work: The Business of the Japanese State: Energy Markets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by Richard J. Samuels,” *Journal of Japanese Studies* 15(1), 1989.
- Calder, Kent E., *Circles of Compensation: Economic Growth and the Globalization of Jap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7.
-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Resolved: Japan Should Maintain Investments in Russian Oil and Gas Projects,” 2022. 6. 15., <https://www.csis.org/analysis/resolved-japan-should-maintain-investments-russian-oil-and-gas-projects>(최종 검색일: 2023. 3. 21.).
- (U.S.)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U.S. Natural Gas Exports and Re-Exports by

- Country,” 2023. 2. 28., [https://www.eia.gov/dnav/ng/ng\\_move\\_expc\\_s1\\_a.htm](https://www.eia.gov/dnav/ng/ng_move_expc_s1_a.htm)(최종 검색일: 2023. 3. 14.).
- Johnson, 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 OECD World, “The Best Place to Explore Trade Data,” <https://oec.world/en>(최종 검색일: 2023. 3. 12.).
- Okimoto, Daniel, *Between MITI and the Market: Japanese Industrial Policy for High Technolog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 Pene-Lassus, Mailys, “Japan Should Exit Sakhalin Energy Projects: Ukraine 1st Deputy PM,” *Nikkei Asia*, 2022. 5. 25., <https://asia.nikkei.com/Politics/Ukraine-war/Japan-should-exit-Sakhalin-energy-projects-Ukraine-1st-deputy-PM>(최종 검색일: 2023. 3. 30.).
- “Russia Will Replace Sakhalin-2 Project Operator with New Firm,” Reuters, 2022. 7. 1.,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russia-will-replace-sakhalin-2-project-operator-with-new-firm-2022-06-30/>(최종 검색일: 2023. 3. 12.).
- Samuels, Richard, *The Business of the Japanese State: Energy Markets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Shell, “Shell Intends to Exit Equity Partnerships Held with Gazprom Entities,” 2022. 2. 28., <https://www.shell.com/media/news-and-media-releases/2022/shell-intends-to-exit-equity-partnerships-held-with-gazprom-entities.html>(최종 검색일: 2023. 3. 12.).
- Yennie-Lindgren, Wrenn, “New Dynamics in Japan-Russia Energy Relations 2011~2017,” *Journal of Eurasian Studies* 9(2), 2018.

## 일본의 ‘안락사 사건’과 안락사에 대한 논의 | 김율리

- [단독] 스위스서 삶 끝낸 한국인 최소 10명… 그 길, 300명이 걷고 있다 [금기된 죽음, 안락사], 『서울신문』, 2023. 7. 9.
- 김천수, 「불법행위책임의 관점에서 본 안락사」, 『민사법학』 28호, 2005.
- 마루야마 마사오, 「일본에서의 종말기 의료를 둘러싼 최근의 동향」, 『서강법학연구』 12권 1호, 2010.
- 미야시타 요이치, 박제이 역, 『11월 28일, 조력자살』, 아토포스, 2020.
- 선테이마이니치취재반, 한상덕 옮김, 『탈, 노후빈곤』, 21세기북스, 2016.
- 시바하라 케이이치, 장학 옮김, 『초고령사회 일본, 재택의료를 실험하다』, 청년의사, 2021.
- 신아연,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책과나무, 2022.
- 양천수, 「연명의료중단을 통한 생명의 처분 가능성: 일본의 논의를 예로 하여」, 『인권법평론』 24호, 2020.
- 우에노 지즈코, 이주희 옮김,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동양북스, 2022, 전자책.
- 유영규·임주형 외,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북콤마, 2020.
- 이상돈, 「안락사의 절차적 정당화: 안락사의 실태와 법적대응」, 『한일법학』 18권, 1999.
- 이윤주, 「일본 대중문화에 투영된 초고령사회의 노인 인식」, 『日本語文學』 93호, 2022.
- 하시다 스가코, 김정환 옮김, 『나답게 살다 나답게 죽고 싶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종합 일기』, 21



## 연구논단

### 일본 지방청년의 진로 선택 시 성별에 따른 지역 간 이동의 차이 | 박지환

이 논문은 대졸 지방청년들 사이에서 진로 선택의 이유 및 출신지역과 관계 맺는 방식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본인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는 추세가 나타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이동의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규슈 지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 남녀 20명과 2021~2022년에 온라인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진학, 취직, 유턴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의 차이를 분석했다.

지방권의 청년여성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첫 직장을 구할 때, 개인의 관심사나 능력만큼이나 가족관계를 중시하고 부모의 의견에 따라 출신지역에 남으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사적인 일을 계기로 출신지역에 돌아오길 희망했다. 반면, 지방권의 청년남성은 대학이나 회사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관심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경력을 쌓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지방에 돌아오거나, 축제와 같은 지역사회의 공적인 장에 이에(家)의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넓은 의미에서 공적인 영역—일터와 지역공동체—에 관여함으로써 출신지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로써, 이 연구는 지방청년 남녀에 대한 상이한 기대나 가치관을 재생산하여 대졸 청년여성들을 지방에 긴박(緊縛)하는 문화적인 힘이 작동하며, 그 결과 성별화된(gendered) 로컬 트랙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지방청년, 지모토 지향, 현내 대학 진학 및 취업, 성별, 로컬 트랙

###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일 간 에너지 관계: 사할린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 임은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 비판적이면서 제재를 단행한 일본이지만, 사할린 프로젝트는 계속 참여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일 간 에너지 관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사할린 프로젝트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급 다변화, 가격 안정성 확보,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지전략적 판단이라는 명분으로 정치권, 정부, 산업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일본의 가스관 “보상의 서클”은 사할린 프로젝트를 대러시아 제재와 분리하며 사업 계속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향후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가와 같은 미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익을 공유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연합체에 의해 추진된 결정인 만큼 앞으로도 쉽게 반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주제어: 우크라이나 전쟁, 러일관계, 에너지 안보, 보상의 서클, 사할린 프로젝트

### 일본의 ‘안락사 사건’과 안락사에 대한 논의 | 김울리

본 논문에서는 전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안락사 사건’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분석한 후 현재 일본에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의를 검토한다. ‘안락사 사건’의 첫 번째 유형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 가족구성원에 의한 것, 두 번째는 병원에서 환자 본인의 요청 없이 의사에 의해 시행된 것, 세 번째는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스스로 안락사 방법을 찾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안락사 사건의 유형 변화는 사회 변동,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 **The War in Ukraine and Russo-Japanese Energy Relation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Sakhalin Project | LIM Eunjung**

Japan has been more critical of Russia's invasion and war in Ukraine than any other countries and has imposed sanctions, but its continued involvement in the Sakhalin Project has raised questions about its motives.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the Sakhalin Projec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war in Ukraine, which continues to reverberate throughout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n the Russo-Japanese energy relations. In the name of supply diversification for energy security, price stability, and geostrategic calcul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the "circles of compensation" in the field of gas composed of politicians, government agencies, industry, and experts have justified the continuation of the Sakhalin project by decoupling it from sanctions against Russia. While the ultimate consequences of the decision may depend on future events, such as the outcome of the war,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cision, having been made by a coalition of actors with shared interests, is unlikely to be easily reversed in the future.

• **Keywords:** War in Ukraine, Russo-Japan Relations, Energy Security, Circles of Compensation, Sakhalin Project

## **Euthanasia Trials and Controversy about Euthanasia in Japanese Society |**

KIM Yulie

This paper analyzes the "euthanasia trials" that have attracted attention in Japanese society from the postwar period to the present, categorizing them into three types and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t then investigates the current debate over euthanasia in Japan. In the first type of euthanasia trial, euthanasia is performed by a family member at the request of a patient experiencing excruciating pain. In the second type, it is performed by a doctor at a hospital without the patient's request. In the last type, the patient themselves searches for methods of euthanasia through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The change in the types of euthanasia trials is partly due to changes in the society and the medical environment, but it can also be attributed to an increased discussion of what constitutes "good death" and the emphasis on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By 2030, it is expected that 30% of Japan's population will be the aged. Examining the direction in which the debate on "how to die" and "good death" will progress in Japanese society would provide a clue for solving problems faced by South Korea, which is experiencing more accelerated population aging than Japan.

• **Keywords:**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right to a self-determined death, super-aged society, Japanese society